

종합·해설

관망하던 광주·전남 정치권이 움직인다

朴·文·安 캠프 지역인사 영입 나서

대선 70일 앞두고 지각변동 조짐

18대 대통령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 왔던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점차 지각 변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각 대선 후보의 선대위 구성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인재 영입 및 세력 확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서는 호남 민심 공략과 국민 대통합 메시지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광주·전남지역 인사 영입에 적극적으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최인기 전 의원, 강봉균 전 의원 등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로부

사들을 중심으로, 미래캠프에는 교수 및 전문가들을 영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위원장은 10여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에서는 지역 캠프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으나 선대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 지지 그룹의 불만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후보 측은 미래·시민캠프 지역조직을 출범시키면서 지지세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인 것 같다”며 “하지만 문 후보 캠프의 핵심 그룹에 지역 인사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들만의 선대위’라는 의구심 극복이 과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로 이동하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당장, 나주시의회 김중운 의장 등 일부 시의원들과 지역 직능·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 안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당 일색인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 의사를 보인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안철수 후보가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며 후보 단일화에서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지역 정치인들의 안 후보 지지 선언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 지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안 후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안 후보가 후보 단일화 구도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한다면 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安 단일화 기사움 ... 개시 시점·방법 엇박자

민주당통합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당 후보론’을 놓고 기사움을 이어가다가 하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본격화했다.

문 후보 진영은 정당후보론을 내세

운영 경험과 민주당이라는 세력의 뒷받침이 안 후보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진영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없이 ‘선거 논리’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유민영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국민은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핵심인사는 “민주당이 정치공화민 한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여전히 하연 방식 그대로 보자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후보 단일화 논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문 후보 측은 10월 하순부터는 단일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안 후보 측은 정치쇄신 없이 안 후보에 비해 우위에 있다.

문 후보 진영은 안 후보 측이 현시점에서 단일화 논의를 꺼리는 것으로 판단, 독자적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진 뒤 이달 하순께부터 논의에 착수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상호 캠프 공보단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일정 기간 단일화 논의가 어렵고 두 후보 각각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선의의 경쟁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단일화는 만능통치약이 아니고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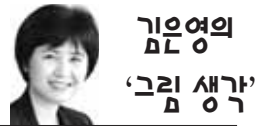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충장축제 ‘추억의 디스코’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이틀째인 10일 오후 금남로 2가에 설치된 무대에서 사넬 댄스팀이 추억의 디스코춤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숨막히는 현실 ... 독서는 ‘인공호흡’과 같은 것



김은영의 ‘그림 생각’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어 ‘책만 보는 바보(看書痴)’라 불리웠던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 (1741 ~ 1793)

는 늘 자신의 자그마한 방에서 온종일 햇살을 따라 책상을 옮겨가며 책을 보았다고 한다. 그 장면에 사로잡힌 나는 종종 휴일이면 투명한 가을 햇살을 따라 책상 대신 몸을 옮겨가며 독서를 하곤 한다. 그 옛날 선인이 가까이 했던 독서의 즐거움을 흉내내보고 싶어서다.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일종의 도서관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했던 작가도 있지만 도서관이든 책방이든 책에 빠져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이 가을은 진정 책읽기에 좋은 계절인 듯싶다. 책 읽는 시간이 황홀한 만큼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도 매혹적이다. 그래서일까. 책 읽는 모습, 특히 ‘책 읽는 여인’은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린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책 읽는 여인’을 그렸던 화가들은 궁금해 했던 것 같다. 책을 왜 읽는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책을 읽으며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소녀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던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1732~1806)의 ‘책 읽는 소녀’(1776년)는 오래 전 달력 속에 자주 등장하곤 했던 작품이다. 프라고나르가 활동했던 시대와 문화와 취향, 감성이 중시되었던 귀족의 시대, 여성의 시대여서인지 작가는 시, 음악 등의 상징으로서 여성 초상화를 많이 남겼다. ‘책 읽는 소녀’는 당시 유행하던 옷을 입고 점잖은 태도로 마치 찾잔을 잡듯 네 손가락으로 책을 들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펼친 채 한껏 멋을 부리며 책을 읽고 있다. 소녀의 시선은 책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탄 세상을 향해



장-오노레 프라고나르 作 ‘책 읽는 소녀’(1776년)

있는 듯하다.

문득 책을 왜 읽는가, 자문해 본다. 책 읽는 시간은 내면의 고요를 찾는 시간, 숨 쉬는 시간이기도 하다. 더러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숨 쉬게 하는 ‘인공호흡’ 같은 것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키우는 시간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열렬히 책을 읽고 사색하고 몽상하는 것 같다. 동네 책방이 하나 둘씩 문을 닫더니, 최근 충장로의 한 대형서점이 4분의 1로 축소된다는 소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실감과 황망함을 주었다. 아마도 그곳이 기실은 우리 도시의 허파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라. 더더욱 ‘인공호흡’이 필요한 시대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상암로점(합동공영 상암로 입구):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옆):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옆):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 032617-5110 수원점(남문 옆):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터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림2001 아울렛 옆):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옆):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9-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 옆): 0708829-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9-8800 서면A점 819-0016 남포동점(부평극장 옆): 051256-7200 울산 울산점(삼남빌도터리):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옆): 055291-8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 0551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5-7575 경북 포항점(대거리): 054044-5110 안동점(구.진동농고가거리): 054859-2248 광주 광주점(한도빌 옆): 022225-5110 광주점(백담광화): 062854-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지하상가거리): 061752-8845 전북 전주점(지대로터리): 063225-5728 군산점(구.새마을 옆): 063446-0188 익산점(북대거리): 063638-6920 남원점(사창가거리): 063632-3525 대전 대전점(도청 옆): 04235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옆): 042255-6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옆): 041653-2888 광주점(광주르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계교 구.속리산고속 앞): 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 043652-1414 강원 강릉점(육천오거리):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옆):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랑로터리):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청별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구도청별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구도청별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북문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북문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북문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